

영암군 씨름단,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순항' 응원

김기태 감독·윤정수 코치 참여 K-씨름 열풍 주역...“적극지원”

케이(K)-씨름 열풍을 일으키며 씨름 인기를 주도하고있는 영암군 씨름단 김기태 감독과 윤정수 코치가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나섰다.

영암군 씨름단 수장인 두 감독·코치는 9일 “영암군 씨름단을 이끌면서 제2의 고향과 같은 전남에 애정이 깊다”며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맥을 이어가듯 고향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을 함께해 기

쁘고, 전남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씨름단은 2023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 금강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를 배출해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주말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영암군 씨름단과 출연해 대중에게 높은 유명세를 얻고 있는 김기태 감독은 한라장사 10회 등의 경력을 지닌 씨름계의 전설로 2017년 감독으로 부임했다.

고향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과 후배 양성에도 많은 노력



영암군 씨름단의 김기태 감독과 윤정수 코치가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나섰다. 영암군 제공

을 기울이고 있다.

윤정수 코치는 통산 천하장사 2회, 백두장사 4회 등 총 13번 장사에 등극했다.

최근에는 구독자 32만명의 ‘윤코치의 맛만 볼까?’ 유튜브 먹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씨름단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돼 전국적인 화제가 된 가운데 첫 만남이 오는 3월 8일로 예정돼 또 한 번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콤부차 발효액 워터젤리 개발 전남도농기원

전남농업기술원이 ‘지방분해’ 성분을 함유한 콤부차(kombucha) 발효액을 첨가한 ‘워터젤리’를 상품화한다.

9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콤부차 워터젤리’는 홍차 콤부차 발효액과 홍차 추출물을 90% 이상 함유해 부드럽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형 제품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남도 내외 콤부차 또는 젤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해 상품화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최근에 탄산음료와 알콜성 음료를 대체할 건강음료로 소비자에게 인식돼 국내외 시장 규모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전남농기원 차산산업연구소는 홍차 콤부차 발효액을 처리한 지방세포에서 지방분해 산물인 글리세롤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재 기자

맞춤형 서비스 본격 지원 여수시 드림스타트

여수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3일 48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교육비와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원·학습지 등 학업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성적과 인지발달 능력을 향상시킨다.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 지원으로는 특기와 재능을 개발해 비전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기관 상담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97가구 150명의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완도 특산물 미국 동부시장 공략 냉동전복·곰팡김·미역 등



냉동전복과 김, 미역 등 청정 완도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미국 동부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완도군은 오는 3월 미국 동부 특산물 판촉전에서 선보일 특산물 선적식을 지난 8일 농공단지 바다명가 제2공장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촉전은 오는 3월1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한양마트 히스빌점과 리지필드점에서 14일간 진행된다.

선적물량은 냉동전복, 전복가공품, 곰팡김, 미역 등 총 45개 품목이다.

판촉전에 참가할 기업은 바다명가, 이문삼육우, 완도다, 우성물산, 완도사랑S&F,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맘, 아들래, 대한물산, 해성인터내셔널 등이다.

미국 동부 최대 상권인 뉴욕,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전남도 상설판매장에서 완도군이 처음 개최하는 판촉전이다. 기존 서부 지역과 온라인에 집중됐던 판촉 활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도=최경철 기자



담양군, 경로당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성황

담양군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행하는 여가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 제공

고흥군, 군민 긴급 복지 지원 강화 나섰다

고흥군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캠페인 활동, 홍보 현수막 설치, 반사회보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주요 홍보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에 관한 것으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은 중전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에서

21만원 인상된 405만원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31만5천원 인상된 162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적·단기적으로 지원해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주가지원을 포함해 총 9개 부문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자격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환 질병 또는 부상 △교정시설 출소 등의 사유와 △주 소득자의 가구원 간병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자 등 조례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해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나 군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830-5924, 5926)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조례 제정

순천시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 제정은 연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의료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취약분야별 아간·응급

진료 지정·운영, 공공보건의료 필수인력 지원 및 육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관협력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하게 된다. 또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는 다음 달 1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열리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신안군, 낙도주민에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신안군은작은섬(낙도) 주민이 전기차 동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작은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

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이달 말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43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이 구매할 경우 최대 183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은 최대 2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장성군, 이동식 경사로 지원

장성군은 출입문이 높아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성군은 주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의 건물 출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해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1순위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인 소규모 편의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 100㎡인 공동주택이 2순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은 3순위이다.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3월 중 현장 방문을 마치고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342억원 규모 투자 협약체결 영암군, 매출 30% 상승 기대



영암군은 농식품산업을 혁신적으로 주도해나갈 업체들과 342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업체는 △대한민국 김치 대전 최우수상을 받은 왕인식품 △김의준 고구마로 고구마 유통 마케팅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담아 △국내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해당도 △영암쌀을 원료로 청년의 눈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떡을 생산하는 영암한호떡집 등이다. 왕인식품은 10억원을 투입해 연수재활용시설과 첨단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담아는 고구마 가공공장을 건립, 250억원을 투자한다.

해당도는 50억원 규모로 APC를 건립할 예정으로 파프리카 수출에 있어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한호떡집은 32억원을 투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떡 생산으로 영암 브랜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